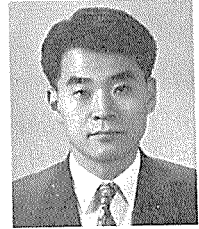


# 정보기술 협정과

## 우리나라 컴퓨터산업



안 근 영 사무관  
정보통신부 산업지원과

최근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GBT)과 함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의하여 전세계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기시장 진입장벽이 사실상 철폐되게 됨으로서 국내시장에서 기술력,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기업과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보기술협정은 정보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협정으로 통신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반도체 생산장비, 측정장치, 일반전자부품 등 202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기술협정은 '95. 12월 스페인에서 미EU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96. 4월 일본 고베에서 열린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Quad국 통상장관회의를 거쳐, '96. 7뉴질랜드 APEC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제안서를 회원국에 배포하면서 공식제기 되었다. 그리고,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96. 12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4개국이 ITA 각

료 선언을 채택하여 추진의지를 밝힌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Quad 4개국은 한국은 정보기술분야의 선도자로서 예외없이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서 2000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모니터 등 극히 일부 분야에서만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 컴퓨터분야를 비롯한 많은 관련산업들이 경쟁력이 미약하여 관세철폐에 따른 문제점을 환기시켰다.

1월말일 협상시한 마지막까지 어어지는 줄다리기 결과 우리나라

는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이 큰 10개 품목의 관세철폐 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무선전송장비, 휴대폰 등 6개 품목은 2002년에 관세를 완전철폐하고, 컴퓨터분야 3개 품목과 반도체측정장비 등 4개 품목은 2004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그외 품목은 2000년에 관세를 철폐)

관세는 '97년 양허세율을 품목별 관세철폐연도까지 균등하게 인하하여 철폐하되, 당해연도의 기본세율과 양허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정보기술협정 대상품목)

구 분	품목수	대 상 제 품
통 신 장 비	14개	교환기, 휴대폰, 전송장치, 모뎀, 광케이블 등
컴 퓨 터	10개	중대형컴퓨터, 개인용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저장장치 등
소 프 트 웨 어	11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장매체 등
반 도 체	16개	원재료,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생산장비	77개	이온주입기, 식각장비, 오븐, 현미경, 스테퍼 등
측 정 장 비	10개	유량계, 압력계, 크로마토그래프, 분광계 등
일 반 전 자 부 품	51개	축전기, 저항기, 인쇄회로, 플러그 및 소켓 등
기 타		평판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키트, 셋탑박스 등
(HS 비분류품)	13개	
계	202개	

〈우리나라 관세철폐 시기연장합의 품목〉

HS코드	품 목	무관세화시점
8517.50	교환기	2000년
8517.50	유선전송장비(다중화장치 등)	"
8525.10	무선전송장비	"
8525.20	휴대폰 등	"
8534	인쇄회로	"
비분류	셋탑박스	"
8471.41	단일 몸체형 컴퓨터	2004년
8471.49	시스템형 컴퓨터	"
8471.50	기타 컴퓨터	"
9030.82	반도체 측정장비	"

〈'96년 주요수출입 품목별 동향〉

(단위 : 백만불)

수출주력품목		주요수입품목	
품 목 명	수 출 액	품 목 명	수 입 액
모 니 터	3,538	하드디스크드라이브	508
케 이 블	583	개 인 용 컴 퓨 터	456
휴 대 폰	423	중 대 형 컴 퓨 터	445
팩 시 밀 리	341	프 린 터	361
CD 롬 드 라 이 브	223	전 송 기 기	329

2000년 관세철폐대상인 입출력 장치, 기억장치 등은 '97년 기본세율은 8%이고, 양허세율은 14.0%로 실제적으로는 '98년부터 관세가 인하되어 7%가 되고 2000년에 철폐된다. 2004년 관세가 철폐되는 컴퓨터관련 품목들은 '97년 기본세율이 7%이고 양허세율은 14.4%로 실제적으로 관세는 2000년에 7.2%로 인하되어 2004년에 철폐될 전망이다.

ITA대상이 되는 정보기술제품의 우리나라 '96년도 수출은 292억불(통관기준 총수출 1,283억불의 23%), 수입은 217억불(통관기준 총수입 1,435억불의 15%)로 무역수지는 75억불 흑자를 보였다.(전체 무역수지는 152억불

적자) 반도체를 제외한 정보기술 제품 주요수출품목은 모니터, 케이블, 휴대폰, 팩시밀리, CD롬 드라이브 등이며 주요수입품목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개인용 컴퓨터, 중대형컴퓨터, 프린터, 전송기기 등으로 컴퓨터 분야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수출의 경우 수입국 제품을 대체하는 대체효과와 가격인하로 인한 수요증대효과가 있으며, 수입국의 시장구조가 자국산제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제품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수입국 산업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수출증가율이 크며, 또한 수입국의 관세 인하폭이 크고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클수록 수출증가 규모가 커

지는 경향이 있다.

수입의 경우 국산제품을 대체하는 대체효과와 가격인하로 인한 수요증대 효과가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자국산업이 존재하고, 제품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과 국내산업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수입증가율이 크며, 관세인하폭이 크고 수입규모가 큰 품목은 수입증가 규모가 큰 경향이 있다.

개인용 컴퓨터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하여 관세인하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시장에서는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가격경쟁이 심한 저가품의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형 컴퓨터는 아직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미약하여 관세인하에 의한 수출촉진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국내 중형컴퓨터의 경우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국산주전산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컴퓨터는 국내산업이 없고, 대부분 외산기종에 의존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모니터는 전세계 시장을 우리나라와 대만이 주도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수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나, 경쟁력이 있는 대만제품의 수입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린터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촉진효과가 기대되나, 일본 제품의 국내수입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시장에서 국산 및 외산점유율('95)〉

(단위 : %)

품 목 설 명	국산점유율	외산점유율
개인용 컴퓨터	77	23
중대형 컴퓨터	7	93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83	17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24	76
프린터	55	45
모니터	87	13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는 미국과 일본제품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관세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촉진효과보다 외국제품의 수입확대효과가 더 클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실행 관세율이 높은 편이고, 미국의 자체 생산도 상당한 규모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촉진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관세율도 비교적 높고 국내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아 수입촉진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일본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으며,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광디스크 드라이브, 프린터 등의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컴퓨터분야의 자체생산이 미미하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촉진효과는 작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관세가 인하/철폐되더라도 EU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 등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EU로부터의 수입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국가들은 컴퓨터 하드웨어분야는 자국 경쟁산업이 미미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 약간의 수출촉진효과가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관세가 철폐되면 동남아등지의 저가형 개인용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협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수출보다 수입증가가 커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정보기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이 활발히 강구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산업구조개편이 촉진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보기술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지원확대를 통하여 수출전망이 밝은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보기술협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된다는 수동적인 사고방식에서 세계시장이 우리에게 활짝 개방된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이를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